

“텃밭 사수” “安風 물이”... 민주당·安신당 설 호남 민심잡기 총력전

민주, 김한길 노인정·시장 방문 2박3일 세배
새정추, 대학가·터미널·역 돌며 귀성객 공략

민주당과 가칭 ‘안철수 신당’이 설 연휴기간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에서 또 한번의 총력전을 펼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설 연휴 전날인 29일과 설 연휴 첫날인 30일 광주·전남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광복 행보를 펼치며 ‘안풍(安風·안철수 바람)’ 잠재우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맞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기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도 설 연휴기간 청년 실업문제를 놓고 지역 청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등 ‘안풍’ 불이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에 전국 ‘민생투어’에 나서기로 한 김한길 대표는 첫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택했다.

김 대표는 29일 광주광산을 비롯한 전남 지역 곳곳의 노인정과 전통시장을 찾은 뒤 광주에서 1박을 할 예정이다.

이어 30일 오전에는 광주에서 휴일 근무 중인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오후에는 전북 전주에서 하룻

밤을 묵을 계획이다.
앞서 김 대표는 첫날 오전 호남선 이용객이 많은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에게 귀향인사를 한 뒤 곧바로 전남을 방문, 민심을 살피고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김 대표의 ‘민생투어’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민께 세배드립니다’라는 행사로, 당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의 이번 순회방문이 6·4 지방선거 전략지역,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는 민주당이 호남에서 거센 ‘안풍’에 맞서 텃밭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김 대표의 이번 광주방문은 지난 2일과 20일에 이어 한 달 사이 3번째다.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정추’도 민주당의 ‘텃밭 사수’에 맞서 설 연휴기간 활발한 행보를 펼칠 예정이다. 새정추는 이 기간 중 새로 창당될 신당 홍보와 함께 새정치에 대



설을 앞두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부인 최명길씨가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재래시장에서 꽃감을 사며 상인과 함께 웃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무소속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 해오름식’에서 청년위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 입으로 말하겠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추 운영원 공동위원장 등은 설 연휴 첫날인 30일 대학가에서 취업준비생들과 대화시간을 갖는 등 ‘젊은층’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전남대 후문 청춘문화공간에서 명절에 집에 가지 못하고 취업준비생들과 대학생들과 함께 취업과 관련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취준진담’ 행사를 갖는다.

새정추는 또 설 연휴기간 관전터미널과 광주역 등지에서 귀성객과 귀향객을 맞으며 ‘새정치’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많은 친구·가족들이 만나기 때문에 민심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점에서 양 진영의 호남 민심 잡기는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신당 가칭 ‘새정치신당’

청년위원회 출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27일 신당의 한시적 이름(가칭)을 ‘새정치신당’으로 결정했다.

새정추는 이날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했다고 새정추 측이 밝혔다.

새정추 측은 “신당의 가칭을 ‘새정치신당’으로 정해 일단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중앙선관위에 신고할 방침”이라면서 “창당 때까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최종 당명은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추는 또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서 청년위원회 ‘해오름식(출범식)’을 가졌다. 안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청년위원회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된 36명과 지난 15일 추진위원회로 영입된 인사 중 3명을 포함해 40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창준위 결성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실무준비단장인 김성식 위원장이 창당 실무와 당헌·당규를, 정책단장인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정강·정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준비된 도지사

당당한 전남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이 27일 전남도의회에서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주 의원은 “당당한 전남, 잘 사는 전남을 만들겠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주승용 전남지사 출마선언 “전남의 기적 이루겠다”

3대 비전·12대 전략 추진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이 27일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위대한 전남 도민과 함께 당당한 전남의 기적을 만들 자신이 있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지금은 어렵지만, 전남은 자라가 인정하는 미래의 블루오션”이라며 “지방과 중앙을 두루 경험한 유일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쌓은 모든 역량을 전남 발전에 쏟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당당한 전남, 잘사는 전남, 섬기는 전남을 ‘3대 조정 비전’으

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남 발전 12대 실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산업과 해양레저관광 및 내륙 힐링산업 집중 육성, 문화예술 진흥,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기업 유치 정책 시행,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와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 보건의료시설의 공공성 강화, 전시성·이벤트성 행사유치 자양, 22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회 정례화 등 실천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같이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5일 김한

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의원직 사퇴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의원직 수행에 표를 준 지역민과 당 지도부가 맘에 걸린다. 개인과 당을 함께 생각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진차출론에 대해서는 “도민과 당원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 시대대진에도 맞지 않고,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4·5대 전남도의원, 여천 군수, 여수시장을 지냈으며,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현재 3선의 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지원 의원 “안신당 후보에 지지도 밀리면 전남지사 출마”

광주지역 기자 간담회

전남지사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박지원 의원(사진)은 27일 “전남에서 ‘안철수 신당’(후보)이 민주당(후보) 지지도를 앞서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 중 2곳을 잃으면 민주당은 존재 기묘에 서게 된다”면서 “전남은 존폐 위기다”고 말했다. “전남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가 (선거에) 나오면 경선 흥행은 된다. 경선을 해서 내가 떨어져도, 내가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흥행과 민주당 바람이



분다면 내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낙연·주승용·김영복 의원 3명이 경선하는 것보다 내가 참여하는 것이 흥행이 될 것이다. 나를 전략 공전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며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치인 중 대중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의원”이라며 “오 의원이 지방선거 기간에 광주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게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지금처럼 중앙정치를 하면서 호남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현재 이낙연·주승용 의원이 신당 후보를 앞선고 있는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나로서는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즈음에 이낙연, 주승용 등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들의 경쟁력이 안철수 신당 후보보다 뒤처질 경우 자신이 직접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뛰어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박 의원의 발언보다 ‘진일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호남에서 경쟁하고 비호남에서는 연합과 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지친 나를 위한 힐링여행을 떠나자!

조이투어와 함께 떠나는 힐링여행

무안공항 MU 항공으로 출발(매주 목,토 출발)

상해·설두산·산신거·주가가 4박5일

869,000

※불포함 : 여권및 개인경비

인천공항 대한항공으로 출발

ALL포함 터키,그리스 일주11일

3,690,000

출발일 4월 28일

겨울방학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카멜리아 299,000

출발일 2/3,16,19,24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족단위 (8명이상)영양합니다. (별정)동석 드립니다

선착순 20명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카멜리아 399,000

카멜리아 내맘대로 자유투어
일본 규슈 3박4일

189,000~ 출발일 2/3,16,19,24
※불포함 : 왕복선박비, 호텔2박

항공 특급호텔숙박!!
오사카, 고토, 나라 3박4일

799,000~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10,000), 석식, 유류할증료(₩24,200)

※세포함, 장급(합숙기준)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10,000), 현지직원관광, 자유석식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34,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도 표시, 광고사항 협치의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2009-1호]

※ 울릉도: 여권 경비 1만 5천, 여행비용 1인당 100,000, 숙박비 1인당 100,000, 관광진흥법(₩10,000), 공항 및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렌터카

※ 상거 요금은 항공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약관 가입

※ 예약시 계좌(계좌입금) 및 신용카드 반드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 전,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배관료, 각종 피차비를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위에 따라 다름